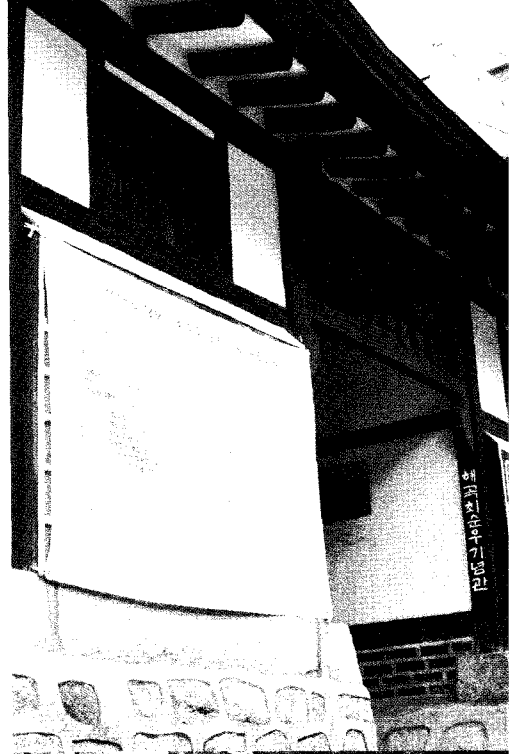


기획취재 기자들과 함께 걷는 길

성북동 걷기

- 한성대 입구역
- 최순우 옛집
- 성락원
- 길상사
- 심우장



도시 한 가운데서 옛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다 성북동 걷기

7, 8월 유난히도 장마가 길고, 특히라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 우리는 지쳤다. 산으로 바다로 또 한 번 나가고 싶지만, 사람 북작이던 지난 휴가를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어디 가깝고, 조용하고, 경치 좋은 데 없을까? 더불어 걷기운동 까지 해낼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다. 성북동. 기자가 이번에 걸었던 성북동 길은 이 3박자가 딱 맞았다. 도심 속 슬로우 시티를 기자와 함께 걸어보자.

한성대 입구역~최순우 옛집(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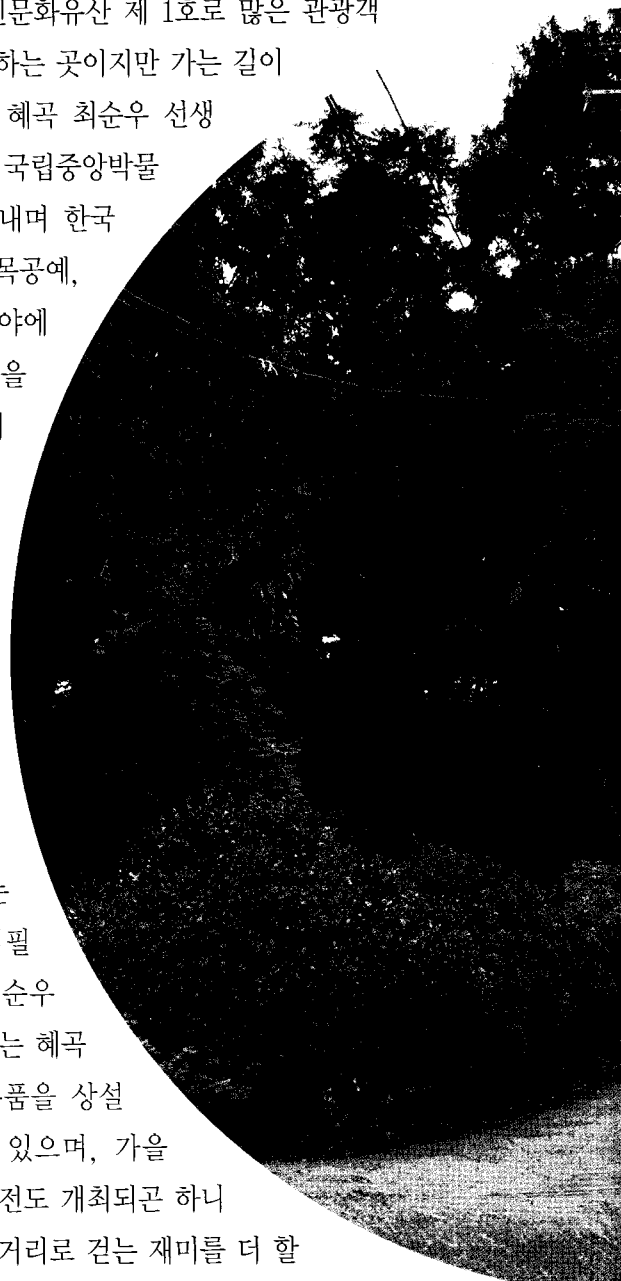
〈길안내〉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입구로 나와 편의점 '훼미리 마트'를 지나 곧장 앞으로 간다. '한마음 동물병원', '성북1동사무소'에 이어 '신한은행'을 지나면 왼쪽으로 골목길이 두 개 보인다. 오른쪽 골목('제일 클리닝'과 '원희패션' 사이길)으로 50m 들어가면 '최순우 옛집'이 보인다.

※최순우 옛집 관람: 4~11월/ 매주 화~토, 오전 10시~오후 4시/ 무료

가벼운 마음으로 한성대 입구에서 출발해 보자. 생각보다 조금 더 걸어야 '한마음 동물병원'이 나올 것이다. 조금해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간다. 길안내를 따라 '신한은행'이 나오면 왼쪽으로 바로 골목이 보일 것이다. '최순우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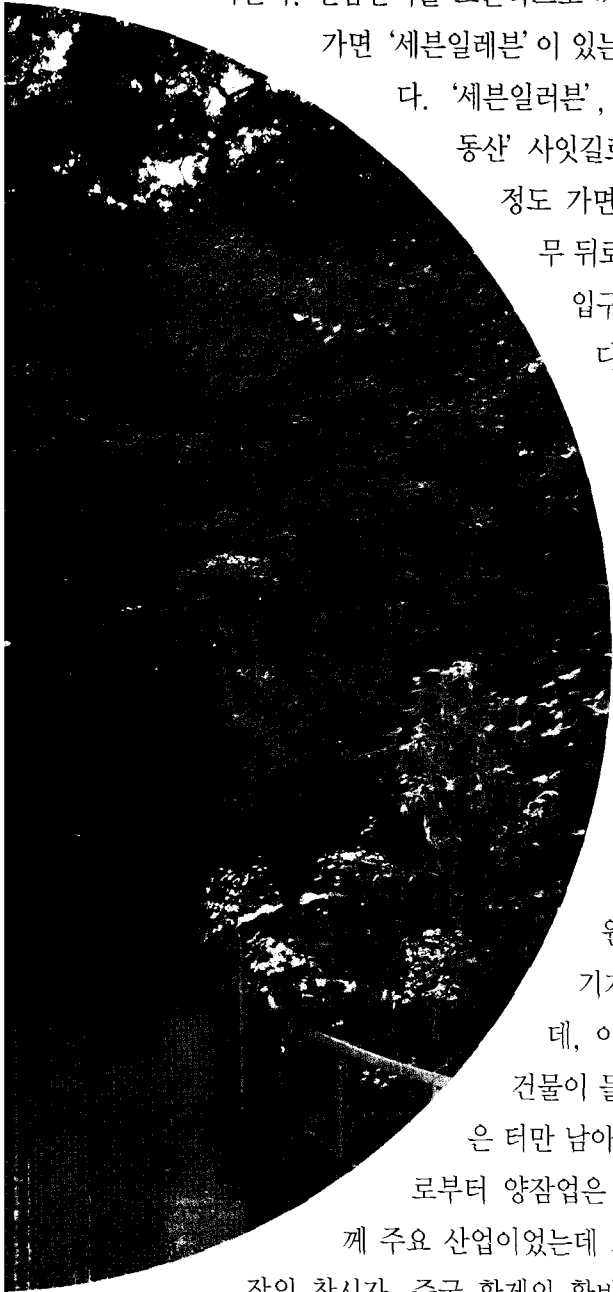
집'은 시민문화유산 제 1호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가는 길이 소박하다. 혜곡 최순우 선생은 제 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며 한국 도자기와 목공예, 회화사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 집에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와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서를 집필했다. '최순우 옛집'에서는 혜곡 선생의 유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특별전도 개최되곤 하니 특별한 볼거리로 걷는 재미를 더 할 수 있다.



최순우 옛집~성락원(10분)

〈길안내〉

다시 큰 길로 나가 '보성마트' 쪽으로 길을 건너 왼쪽으로 쭉 가면 '선잠단지(先蠶壇址)'가 나온다. 선잠단지를 오른쪽으로 끼고 올라 가면 '세븐일레븐'이 있는 사거리다. '세븐일레븐', '서울부동산' 사잇길로 200m 정도 가면 느티나무 뒤로 성락원 입구가 보인다.



'선잠단지'는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 역사 문화유적지이다.

원래는 크기가 꽤 컸는데, 이제는 전부 건물이 들어서서 작은 터만 남아있다. 고대로부터 양잠업은 농업과 함께 주요 산업이었는데 조선 때 양잠의 창시자, 중국 황제의 황비 서릉씨를 누에신으로 모시고 이곳에 단을 쌓아 제사를 지낸

것. 평소에는 문을 잠가놓아 홍살문 넘어만 볼 수 있다. 선잠단지를 지나 오른쪽 길로 안내에 따라 가다 보면 근사한 집들 끝에 성락원이 있다. 성락원은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조선시대 별장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십분 활용하여 꾸며진 곳이라 그 풍치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락원은 사유지여서 개방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자.

성락원~길상사(20분)

〈길안내〉

다시 '세븐일레븐'을 끼고 오른쪽으로 간다. 천주교 성북동 성당을 지나 계속 걷다보면 갈림길이다. 길 앞에 '육화사'라고 커다랗게 쓴 표지가 있고 그 옆 전신주에 작은 '길상사' 표지가 보인다. 표지를 따라 왼쪽으로 올라가 '북악슈퍼'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길상사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절제된 단아함이 느껴지는 길상사 가는 길은 제법 곱을 만하다. 평지와 오르막이 적당히 연결되어 있고, 차가 가끔 다니지만 보도와 분리되어 있어 방해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용히 주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 좋다.

길상사는 서울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한 절로, 원래 이 사찰은 1980년대 말까지 삼청각, 청운각과 함께 최고급 요정의 하나였던 대원각 자리였다. 하지만 대원각 주인이었던 김영한 여사가 법정스님에게 시주해 길상사로 탈바꿈한 것. 현재는 사찰의 기능 뿐 아니라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다. 절인 듯, 잘 꾸며진 공원인 듯 한 길상사에 잠시 들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의 색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식혀 보자.

길상사~심우장(25분)

〈길안내〉

길상사 앞에서 길을 건너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다. 왼쪽 삼청터널 방향으로 간다. 처음 만나는 사거리에서 왼쪽 성북동길 쪽으로 간다. 1111번 버스 종점을 지나 왼쪽 일식집 ‘비양도’ 맞은편에 ‘심우장’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계단을 올라가면 ‘심우장’이다.

길상사를 지나 오르막 갈림길에서 삼청터널 방향으로 가는 길은 꽤 험하다. 차가 많이 다니고 특별한 보행자 길이 없어서 위험하기도 해 노년층이라면 이 길 걷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길을 조심히 따라가면, 높은 담장 넘어로 대사관 저택들을 볼 수가 있다. 고즈넉한 한옥과 이국적인 건물들의 절묘한 조화가 성북동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한다. 그렇게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한 고개를 넘으면 앞에 1111번 버스 종점이 보이고 ‘성북 우정의 공원’을 지나게 될 것이다. 공원 치고는 작은 공간이지만 몇 가지 운동기구도 있어 작은 쉼터 삼아 잠시 머물러도 좋겠다.

다시 걸음을 옮겨 ‘심우장’으로 간다. 버스정류장을 지나 길을 쪽 따라가다 보면 ‘심우장’ 표지판이 보인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은 좁고, 제법 경사진 오르막 골목이므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보자. 작은 대문의 출입문 앞에 ‘심우장(壽牛莊)’이라고 써 있는 현판이 있는데, 이것은 선종의 수행 단계 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뜻이다. 만해 한용운의 마지막 거처인 이 ‘심우장’은 북향집인데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는 것을 꺼려 북향터를 선택한 것으로, 일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만해의 의지를 잘 보여

주며, 비교적 널찍한 마당에 규모가 작고 꾸밈없는 고택(古宅)은 그의 우직한 고집을 느끼게 한다.

심우장~한성대입구역(15분)

〈길안내〉

올라갔던 길을 되돌아 내려와 다시 큰 길로 나간다. 그 길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교차로에 ‘구보다스시’ 음식점이 있다. 그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성북파출소를 지나 선잠단지(선잠단지가 있고, 계속 직진하면 한성대입구역 6번 출입구다.

이제 꽤 다리가 아플 것이다. 하지만 한성대입구역까지 좀 걸어야 하는 거리 이므로 아직 여력이 있다면 끝까지 걸으면 좋고, 힘에 부친다면 근처 버스 등 편한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구보다스시’ 앞의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내려가면 낮은 건물이 보일 것이다. 아까 지나쳤던 선잠단지 등이 다시 나오므로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가 한성대입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길안내 도움말 / 조선일보 주말 MAGAZINE 글 / 곽정은 기자

